

# 보도설명자료

(’23. 2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전기·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
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
(2.21일자 헤럴드경제 등 「민주 “尹대통령 레임덕 시작?... 정부 전기  
요금 인상 엿박자”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---

## 1. 보도 내용

- 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 
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면서 “집권한 지 1년도 안됐  
는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만큼 레임덕이 시작된 것인가”  
라고 지적했다고 보도

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- ☐ 동 보도내용 중 인용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- ☐ 정부는 2.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(산업부 장관 참석)에서 공개된 「물가·  
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」을 통해 향후 전기·가스 요금은  
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힘
  - 또한,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.20일 산업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 
에서 “대통령께서 에너지요금 인상은 앞으로 속도는 조정하면서  
융통성 있게 하자고 하셨는데, 그 말에 동의한다”고 말하였고,
  - “또한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두텁게 하여 사각지대  
없이 촘촘하게 해나갈 것”이라고 언급하였음
- ☐ 정부는 전기·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  
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 : 에너지정책과 김호성 과장(044-203-5120)

박은표 서기관(044-203-5121)

가스산업과 박덕열 과장(044-203-5230)

한주현 사무관(044-203-5232)

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(044-203-3910)

이승원 사무관(044-203-3913)